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통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내 입술이 찬송을 발할지니”

제5회 교구찬양대회 13일(토) 오후 2시 본당에서

제5회 교구찬양대회가 오는 4월 13일(토)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개최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리며, 교구 식구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이번 찬양대회를 위해 교회내 곳곳에서는 주일은 물론 평일에도 더 아름다운 화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교구별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대회 본부측은 지휘자·반주자(단 본교회 대예배 담당

군종장교후보생 수련회에서
이종윤 위임목사 강의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육해공군 군종장교후보생 수련회가 있었다.

약 70여 명이 참가한 이 수련회에서 이종윤 위임목사가 “크리스찬 지도자론”에 대해 강의하였다.

제자훈련 뜨거운 열기로 성황

지난 4월 4일과 5일 실시되었던 제자훈련에 참가한 직분자들의 수가 8백 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장을 가진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모범적인 교회의 성도들로써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열의가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청년3부 정기 기도회 갖기로

청년3부에서는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과 청년부의 발전을 위해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정기적으로 기도원에서 기도모임을 갖는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중심에 되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3월 29일 금요일 첫회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한다.

당지는 제외) 명단을 참가 신청서와 함께 4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창 부문의 참가 팀은 대회 일주일 전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찬양대회의 지정곡은 245장, 478장, 519장 중 한 장을 택 일하여 하며, 합창 부문에서는 남자 성도들의 참여도를 중심으로 참여도, 태도, 음악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또한 중창부문은

참여를 원하는 교구에 한해 참여할 수 있는데, 8~16명을 원칙으로 하며 태도와 음악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는 교구 찬양대회에 많은 충현의 식구들이 참가하여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울러 교구 식구들 간에 친목도 도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

충현부부교양대학 4월 23일 개강

우리 교회 부설 충현부부교양대학은 금년에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충현부부교양강좌를 개설한다고 한다.

이번 제4회 부부교양강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 사랑과 기쁨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대 상 : 부부동반 (타교회 성도도 환영)
- 장 소 : 충현교회 갈릴리홀
- 등 록 비 : 5천원 (간식제공)
- 접수기간 : 4. 7~4. 23
- 접 수 처 : 사무국 행정과(소석관 102호)

날 자	주 제	강 사
4. 23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가정	이종윤 목사(충현교회)
4. 30	그리스도인 가정의 스트레스	최영민 교수(서울 백병원)
5. 7	그리스도인과 성	이춘실 교수(장신대학)
5. 14	그리스도인 가정의 영적인 삶	이무영 교수(장신대학)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학교 4월과 5월을 총력 전도 기간으로

새봄을 맞아 교회학교마다 전도 활동이 활발하다.

예바다부는 오는 4월 14일을 면려회 주최로 초청전도집회의 날로 정하고 친교회와 좌담회, 단합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초등3부와 4부도 5월 12일 초청전도집회를 위하여 노방전도와 뽀지걸, 성경 이야기 대회를 준비한다. 특히 초등4부는 이번 총동원 집회에 400명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 기도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8시 30분 기도회 배스를 타고 9시 30분에 도착하여 12시 30분까지 전체 기도회를 갖는다. 틈틈히 간식과 찬양으로 교회의 시간을 갖고, 토론과 많은 기도로 채워진 후, 취침에 들어간다. 새벽 6시 간단히 기도를 마치고, 교회행 배스

중등3부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도 기간을 정하고 전도 방법에 대한 특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8시부터 이를 위한 학생 및 교사 기도회가 있다. 이 기간 동안 태신자를 만들고 주일 주보에 태신자 명단을 발표해 함께 기도하는 한편 전도에 대한 간증문도 쓴다. 중등3부는 1인 1명씩 전도해 18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를 타고 돌아온다. 이번 기도회가 첫번째였는데도 기도를 갈망하고 갈급해 하는 회원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았다. 교사와 회원간의 화합 도모를 위해 교사 한 분은 벨터 참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Y선생님,

결혼식을 하신 지가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축복의 열매로 받은 아기를 안고 교회에 오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대견스레 여겨 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자자손손 만대에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Y선생님은 고등 교육을 받으셨고 가정 교육도 훌륭해서 상식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아기를 안고 참석하는 어머니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배 분위기가 조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런지, 아기 어머니로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기들을 위한 탁아부가 있고, 예배의 경건성을 강조하여 수천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피착에 조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온 가족이, 특히 갓난 아기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은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Y선생님의 신앙과 지성을 믿습니다. Y선생님같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교인이 날로 늘어나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4. 7
이 종 윤 목사

새가족환영회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월, 3월 등록자 참석 요망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갈릴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새가족 환영회는 2, 3월 에 등록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부터는 교회에서 새가족들에게 “신앙의 곡선” (이종윤 위임목사 저)이라는 신앙서적을 선물로 나누어준다고 한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설교가 있

은 후, 교회 각 부서에 대해소 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할 예정이며 새가족부 회원들이 그 동안 배운 찬송으로 찬양드리는 특송 순서도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새가족부 회원들 자신이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굳건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간증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찬양대원 및 교사 임명

◆ 찬양대원

- 베들레헴찬양대 지휘 : 권시창
- 야메찬양대 : 홍현희, 김성옥, 김영옥, 김유정, 장운정, 전종익
- 가브리엘찬양대 : 이은경, 최연희, 안명준, 허옥분, 안춘진, 박춘배, 이정미, 김혜영, 장상원
- 할렐루야찬양대 : 최희용, 박창석

◆ 교 사

- 초등1부 : 김금순, 이병숙, 박미서, 조숙희, 김숙영, 김정남, 이진규, 김철남
- 초등2부 : 김형순, 임복례, 이수호, 남승용
- 초등3부 : 송영자, 이영복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 12:31-33)

1.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인가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우리라는 것을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에 나타나신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후에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당시 헬라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은 모든 현상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못박혀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으며, 우리들이 흘러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죽음을 “들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게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복음 전파를 그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들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매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게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들리셨다 하여도 주님게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게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주님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들의 방향을 잡아주시어 주님게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니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은 구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호 11:4)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꽂혀서 주님 앞에 끌려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러하여 우리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단단하게 굳은 땅과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과가 나누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언리즘은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들은 만인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칼빈리즘은 이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즉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잘난 자와 못난 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고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

인간의 창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야 할 존재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학자가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고 신앙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기록된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총동원해보아도 인간의 창조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의 구주로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때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자기에게 나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2. 친히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여기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미리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들린다”는 말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들은 진리로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 주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앙적으로 자던 잠에서 깨어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3. 언약의 내용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주님게로 이끄시려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 호주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교회협의회(WCC) 제7차 총회에서 “자연신학”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연신학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하거나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뿐 아니라, 짐승이나 산천의 초목들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32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겠다고 하셨지, 천지만물들을 모두 이끄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들의 잘못이 그대로 폭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

를 내가 마지막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요 6:44).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주님게로 나아오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혹자는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마땅히 주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를 가르치거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게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흑인과 백인, 동양인과 서양인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칼빈리즘의 선택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게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분의 이러한 뜻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때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신학 교육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학문적인 과정을 밟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로 적합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학 교육이 학문적 지고성(Academic Excellence)과 영적 성숙성(Spiritual Maturity)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신학 교육의 일차적 목적이 목회자 양성에 있다면, 신학교에서 신학자로서 필요한 지식보다는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영적 자질의 배양을 위한 커리큘럼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신학 커리큘럼을 조화 있게 만들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꾼을 배양하도록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학 교육의 현실이다.

2. 성경적 원리

첫째, 목사 후보생은 영적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먼저 영성 개발로서는 영적인 은사를 가진 자로 높은 덕성을 필요로 하고, 기능 개발로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일반적 자질만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식 개발로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언약의 종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목사 후보생은 말씀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성령의 은사로 목사에게 필요한 좋은 성품, 훌륭한 기능과 바

신학교 커리큘럼과 목회 현장

강사 이 중 윤 위임목사



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영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들을 교회에 주시고, 이들 교사들은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교리를 전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기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가르치기도 하는 모범을 보인다. 모범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을 통해 배우기도 한다. 복종함으로 복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된다.

말씀으로, 모범으로,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셋째, 목사 후보생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라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주신 자들이다. 이들은 행정관리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신학교 커리큘럼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 실제적 제안

우리 교회는 신학 교육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얻기보다 어떻게 '하나님 지식'을 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문적 지식을 통한 높은 학위와 깊은 지식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모두 목회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한 영적 준비과정 이 확실한 목회자 양성에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일단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일은 신학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딤후 2:2).

이상에서 언급된 제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만한 커리큘럼을 작성, 제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분석, 검토하고 선진국들의 신학 교육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좀더 나은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해외의 복음주의 계통의 학교가 비복음주의 학교나 국내 신학교보다 시간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 지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학이나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성경신학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교파나 학교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도 신학의 기본이 되는 성경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실천신학이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가 하면, 실용주의적 사고에 젖은 미국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학문간에 상호 연결이나 통일성에 대한 연구는 차치하고서라도 목회자 자질에 절대요소인 영성 개발과 지식개발을 억압해서도 안될 것이다. 영국의 대학들이 신학의 각 분야를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학문간의 형평의 원리를 적용했는지는 모르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이상적 논리로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전체 학점의 절반에 가까

운 학점을 선택 과목에서 얻도록 하여 학생 자신의 필요에 따라 채우도록 한 신학교(감신 CGST)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과목이 빈약한 경우라 하겠다.

성경원어(헬라어, 히브리어)를 선택한 신학교가 늘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게 된 신학교들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신학교육은 물론 교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오늘의 목회자들이 바라는 신학 교육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설문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대상: 충청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의 목사 중 60명). 여기에서 실천신학이 45퍼센트로 가장 강조된 과목으로 채택됐으며 학문을 위한 이론신학이 아닌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성경신학과 이론신학이 강의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와, 선배들 간의 인격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인격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계도가 필수적이며 시간활용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운용,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학 교육을 4년제로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그 무엇보다도 소명감이 투철한 목사 후보생을 추천 과정에서부터 확실한 검증과 확신을 갖고 교회와 신학교가 책임 있게 교육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신학 교육의 커리큘럼은 반드시 그 초점을 목회 사역에 맞추어야 하며, 한 사람의 목회자 양성에 필요한 모든 학문적 준비와 영성개발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위원회를 찾아서 - 전도위원회

전교인의 전도회원화를 꿈꾸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전도위원회라고 하면 남녀전도회를 포괄하고 담당하는 위원회 정도라 하고 알고 있기에 심상이다. 물론 남녀전도회가 전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위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전도위원회는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째가 남녀전도회로 136개의 지회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고, 두번째 직능전도회는 7개의 부로 나뉘어 각기 설립인·범조인·교수·군경 등의 직

능별 전도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셋째 농어촌전도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무교회 지역을 개척하고 있다. 농어촌전도부의 이러한 활동과 후보지 조사 작업 후에는 그곳에 지교회를 설립해서 농어촌 복음화에 주역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네번째는 전도위원회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70인전도부이다.

70인전도부는 본 교회가 오래전부터 조직, 훈련해오던 것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올해부터 다시 부활 시행하는 것인데, '70인전도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70



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성경 말씀에서 유래된 고유명사로, 70명으로 구성된 전도대는 아니다. 매주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통한 1차 교육과정이 있는데,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교육과 기도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전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개인, 그룹, 대중 전도 등 다양한 형태의 전도 활동을 훈련받게 된다.

전도위원회는 이 70인전도대의 교육과 훈련 활동을 올해의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렇게 훈련된 70인전도대는 교육받은 전

도대로서 교회의 전도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금년도 우리 교회의 전도 목표인 25퍼센트 교인 배가에도 큰 몫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예년과 같이 여름에는 하계 전도대가 구성되는데 여러 군데에 있는 취약한 지역에 파송되어 그곳의 주일 학교 활동을 돕고 축회 전도를 하는 등 그곳 교회의 발전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게 된다. 그 동안 많은 호응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올해도 큰 은혜 속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있다. 올해도 지교회를 중심으로 파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기전 장로는 대식구를 거느리는 데 고충이 없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만 충분히 더 현실할 수 있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현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

게 던지곤 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전도위원회 회원들 수가 약 5,000명쯤 되는데 앞으로 전도회원의 모집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충청교회의 모든 성인 남녀들이 전도회원화 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는 2003년까지 농어촌 취약 지역에 많은 지교회를 설립해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민족 복음화에 충청교회가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도위원회의 먼 장래의 계획까지를 듣고 있자니 전도위원회가 젊은이의 정신으로 열심히 뛰고 계획한다면, 민족이 복음화되어 한반도 곳곳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

교육의 현장 - 고등부

신행일치의 삶을 중점적으로 지도

“젊음을 주님께 돌리자”라는 91년도 교육 목표 아래, 고등학생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고등부를 찾아보았다.

송태근 목사를 지도 목사로, 최성현 장로를 부장으로 모시고 있는 고등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소답게 패기가 넘쳤다.

교사들은 주일 8시경에 기도회를 통해 주일 하루의 일과를 준비한다. 이들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과 실제의 생활과의 접점을 찾아 하나님 안에서 참신앙이 자라도록 교육하고 있다.

특히 고등부는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신앙과 학업을 병행해 나갈 때, 그로 인해 오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하며 특강이나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고등부의 교사와 후배들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집중적인 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그래서 고등부 전체가 짝을 맺어 ‘결연기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가 많아, 교사와 학생이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 학생들의 고민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함을 설치해 학생들의 고민을 나누고 또 그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

는 내용이면 주보를 통해 그 고민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다.

고등부는 학생회, 편집부 등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숨은 재능을 개발하며 소질을 발휘하고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학생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고등부 내의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을 주관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편집부는 매주 주보를 발행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전도부는 노방 전도 등 모든 전도 활동을 한다. 성극부는 성극을 통해 달란트를 개발하고 싱어송 팀은 예배 전의 찬양을 담당한다. 그리고 찬양대는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소그룹 활동들은 지난 부활절 예술제와 코이노니아의 밤 등을 통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고등부는 교사와 학생이 단합이 잘되어 주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준다. 올해부터는 분반공부 시간이 주일식 교육에서 토론식으로 바뀌어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졌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양육하는 고등부를 보니 우리 교회의 앞날이 기대가 된다.

독자의 난

감당할 시험밖에는

항송자성도

(충현장애아동조기교육원 학부모)

제 딸 은선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7일만에 황달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세가 너무 심해서 우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 하였습니다. 코에 호스를 연결하여 생명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포기하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저는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20일 후 은선이는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숨은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은선이는 완쾌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한 후에는 웬일인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은선이를 보고 주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눈물로 세월보 내기를 3개월, 3개월 이후에는 밤낮을 분별하는지 우는 회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후 1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걷지를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조금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소문하여 좋다고 하는 정형외과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7년 4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

서 은선이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뇌성마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은선이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는 각오로, 특수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하고 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선이의 차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긴박한 사정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5월에 다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게 하셨습니다. 은선이는 그곳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인가 봅니다. 조금 평안하다 싶어 신앙의 잠을 자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채찍을 드시어 바른 길로 인도 하셨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러 가려고 일어났는데, 육신의 생각에 눌러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

다. 그 순간 은선이가 다리를 쭉 뻗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단숨에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저는 목사님과 40일 아침 금식 작정기도를 하였습니다.

은선이는 88년 9월 어려운 분을 통과하여 충현장애아동조기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이 신앙 안에서 은선이를 너무 아껴주었고, 또 사랑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당시, 은선이는 엄마, 물과 같은 아주 쉬운 단어 몇 가지 정도밖에는 이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빠”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얼마나 마음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후로는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직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도 꾸며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선이의 모습을 외면하실 리 없으며,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은선이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길 믿습니다.



제15과 사흘만에

본문 : 마 27 : 62~66 찬송 : 157장
참조 : 주간충현 108호 부활절 메시지

I. 진리를 아는 것(아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다시 사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로마 군부와 대제사장들(안나스, 가이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인봉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믿지는 못했다. 그들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사흘만에’라는 말씀은 요 2 : 19~21에서 처음 예수님이 사용하신 후 복음서에서 10번이나 나타난다. ‘제 3일에’라는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12번,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24번이나 나타난다. 이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저들은 46년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했다.

이처럼 불확실한 지식, 또는 진리에 대한 오해는 진리예로의 접근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는

경우에까지 우리를 끌어내린다.

II. 진리를 알고 심지어 두려워했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예수에 대해 제자들은 두려움은 커녕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해 그에게서 도망을 쳤다. 그러나 예수를 못박은 이들은 “사흘 후에” 다시 사시게 되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무덤을 수직하고 시체 도적질을 사전 봉쇄하고 또는 그의 부활을 저지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실은 사흘 후에 살아 나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기하락이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붕괴로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는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되지만 잘못 두려워하게 되면 공포와 위기의식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III. 사흘만에 부활하신 날이 곧 주일

예수를 무덤에 가두어 둘 수만은 없었다. 돌로 막고 인봉하고 수직했다 해도 주님은 사흘만에 살아 나셨다. 신약에 나타난 주일에 되어진 일들 : ① 안식 후 첫날 예수가 부활하셨다. ② 예수 승천도 주일에 있었다(요 20 : 17). ③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신 것도 주일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④ 엠마오로 가던 제자

에게 떡을 떼어 주신 날과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떡을 떼신 날도 주일이다(부활 후 성찬식이다). ⑤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날도 주일이다(눅 24 : 45~47). ⑥ 세계 복음화에 대한 과업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도 주일에 있었다(요 20 : 21; 눅 24 : 48). ⑦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날(요 20 : 22) ⑧ 부활 후 7주가 지난 오순절(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⑨ 바울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성령이 지시 하신 날(행 20, 드로아에서 전도토록) ⑩ 성도마다 자기 수입을 모아 헌금을 바친 날(고전 16 : 2) ⑪ 밋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이며, 그에게 하늘 영광을 계시하신 날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토요일) 대신 주일(일요일)을 예배일로 거룩히 지키고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도

- ① 모여서(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헌금을 바치고 성찬식을 베풀면서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 ② 성령을 받고(중생을 체험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 ③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사도적 신앙고백)
- ④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